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서항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지속적 고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부상 문제가 최근 또다시 국내외적으로 언론매체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은 13억이라는 많은 인구를 인해 아직도 세계의 하위권(100위권)을 뺄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총량은 미국과 일본을 뒤쫓는 강대국 수준인 것이다.

중국의 무서운 부상

확대된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는 물론 세계 각 곳의 자원과 원자재를 대상으로 거의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군비지출과 이와 연계된 군사력 증강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거의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비율로 국방비를 늘려왔으며 올해 국방비도 작년보다

해 17% 이상 늘린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중국 국방당국은 증대된 국방비가 주로 군병력의 관리 및 처우개선에 집중되고 개선된 군사력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호를 위해 사용될 뿐,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주변국의 시선은 이와 다른 것이 사실이다.

지난 수년간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이루어

무려 45배나 늘었다. 현재 두 나라사이의 항공기 운항편수가 주 평균 약 830회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인적 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중국의 급격하고도 무서운 부상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결국 아래와 같은 2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즉, 중국의 부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와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부적으로도 농간 격차, 지역 불균형, 정치적 민주주의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놀라운 부상이라는 국제정치적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위협요인을 줄이면서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수 앞바다 잇단 선박사고 대책 서둘러라

지난해 말 대안 앞바다 기름 유출 악몽이 재 가지지 않은 가운데 여수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다행히 이번 기름유출은 사고 지점이 먼 바다인 데다 사고 현장 부근에 양식장이 없어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사고로 인한 기름유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오토도 앞바다에서 급유 중이던 화물선에서 100t 가량의 기름이 유출됐다.

일어났다. 1995년 원유 5천t이 유출돼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던 셰프린스호 사고 지점 역시 여수 앞바다였다.

여수 앞바다의 잦은 선박사고는 이곳 조류가 빠르다. 기상변화가 심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수는 2012엑스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잦은 선박사고는 여수엑스포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여수 앞바다의 해양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철저한 항로 점검과 감시, 단속 등 구체적인 해양 사고 관리체계를 확립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간판주자' 수도권 출마 확산되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거취를 고심해온 통합민주당 양대 간판주자가 서울지역 출마를 결정했다.

손 대표와 정 전 장관이 서울의 지역 구 출마를 결심한 것은 총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치지도자에겐 원칙과 대의가 중요하다. 원칙과 대의 없이 계산만 앞세워선 정치지도자로 성장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지금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당 지지율이 20% 안팎에 불과해 한나라당과 2~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격차가 좁혀질 기미도 없다.

두 사람의 서울 출마는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지방당시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버리고 상성성이 큰 서울에서 직접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개혁공천과 변화 없이는 총선 전망은 어두운 수밖에 없다.

기고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20년 전 일이다. 한국에 있는 친지로 부터 부탁을 받았다. "야구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선물을 하려 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야구 장갑을 사서 보내달라"는 것이다.

2006년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 트고, 각종 휘두르며, 회사 기물을 부수며 시위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에까지 전파를 타고 보

메이드 인 코리아

위에 점점 증가하는 한국제품을 보는 이 곳 동료들의 마음은 대단히 호뮴했다.

2006년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 트고, 각종 휘두르며, 회사 기물을 부수며 시위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에까지 전파를 타고 보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이 주종을 이룬 가운데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에 비해 값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품질 면에서는 월등해 미국인들에게도 인기였다.

지금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 백화점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나이 든 교사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버려야

며칠 전 버스 안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듯한 아이에게 묻는 말을 들었다. 그 엄마는 아이에게 "이번에 너희 선생님 남자니 여자니?, 젊어 나이 들었어?"라고 물었다.

나이 든 교사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배어 있다. 사실 해마다 3월 반 배정이 끝나고 나면 '답답이 너무 늙었다'며 교장실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학부모들도 상당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가죽 중에 나이 드신 교사가 있는 필자로서는 앞에서 그런 말을 듣기가 거북했다. 학부모들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이 먹은 교사들은 아이들 가르칠 자격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물론 젊은 교사들은 여러모로 생기발랄하고 당차고 컴퓨터 세대라 아이들과 코드도 잘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알고 있는 교육은 '교과 수업'이 전부 아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 지급합니다.

시현주



새 정부의 최대 화두는 '경제 살리기'이다. 이에 발 맞춰 한국전력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전력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제도를 시행해 왔다.

전력 공사비 부담 원칙 필요한 이유

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전력사업의 특성상 투자재원의 효과적 조달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비위생적 펠트병 음식점 물병 사용 "기겁"

식당에 가면 예사로 펠트병에 물을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손님들에게 내준다. 무심코 사용하는 펠트병이 세균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비위생적 펠트병 음식점 물병 사용 "기겁"

이유는 병뚜껑이 좁고 그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대부분 몸체에 많은 홈이 동글게 파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전력사업의 특성상 투자재원의 효과적 조달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전력사업의 특성상 투자재원의 효과적 조달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비위생적 펠트병 음식점 물병 사용 "기겁"

식당에 가면 예사로 펠트병에 물을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손님들에게 내준다. 무심코 사용하는 펠트병이 세균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비위생적 펠트병 음식점 물병 사용 "기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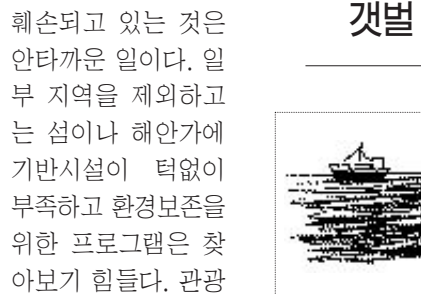
이유는 병뚜껑이 좁고 그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대부분 몸체에 많은 홈이 동글게 파져 있기 때문이다.

無等鼓

각 지역마다 봄 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체 시행이후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시·군별 특색을 살린 축제가 늘어났다는 점일 것이다.

각 지역마다 봄 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체 시행이후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시·군별 특색을 살린 축제가 늘어났다는 점일 것이다.

갯벌 축제



갯벌 축제는 흔히 자연의 정화조로 불린다.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10조원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갯벌 축제는 흔히 자연의 정화조로 불린다.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10조원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간1